다산포럼

금장태

명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

부·귀·공·명(富貴功名)이야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주위에는 높은 지위의 지도층 인사들이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챙기는 일이 허다하고, 그 죄상이 발각된 후에도 후안무치하게 끝까지 오리발만 내밀다가 명성을 여지없이 더럽히고 마는 사람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위를 얻으면 재물이 따라온다는 믿음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공적이나 명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장식물쯤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옛 선비들은 가치관이 상당히 달랐던 것 같다. 재물(富)이나 지위(貴)는 자신을 탐욕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쉬운 속된 것으로 여겨 경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상을 위해 어떤 공적(功)을 세울 것인지를 중시하고, 이보다 더 자신의 명성(名)을 당당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일을 생명만큼이나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아무 지위 없이 베옷을 입고 사는 선비도 예의를 존중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겼다.

옛 선비들이 '명성'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보니, 여기도 문제가 있어서 논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 퇴계가 기대승(高峯 奇大升)과 성리설 논쟁을 벌이면서 퇴계의 제자들 사이에서 고답적 철학논쟁의 학풍이 일어나 이로 인해 명성을 얻은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이때 퇴계와 더불어 당시 영남지역의 학풍을 이끌어가던 양대 축이었던 남명(南冥 曹植)이 퇴계에게 진지하게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던 일이 있었다.

남명은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즈음 배우는 자들을 보니, 손으로 물 뿌리고 마당 쓰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말하여 명성을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곧 일상생활에서 사람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공허한 이론으로 헛된 명성을 얻는 것은 남을 속이는 짓이라 비판한 것이요, 퇴계에게 성리설을 토론하며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풍조를 단속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다. 인격적 실천도 없고 사회적 책임감도 없이 관념적 이론으로 얻어지는 명성을 탐닉하는 학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니,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퇴계는 이 편지를 받고 남명에게 보낸 답장에서, "이른바 '배우는 자가 명성을 훔치고 세상을 속인다'는 논의는 그대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근심하고 있습니다.…일체 꾸짖어 그만두게 한다면, 이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선을 내려 베풀어주신 뜻에 어긋나고 천하 사람들이 '도'를 지향하는 길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어찌 일률적으로 세상을 속이며 명성을 훔친다고 몰아서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박하였다.

곧 '도'를 밝히면서 비록 헛된 명성을 추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도'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더 큰 폐단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여, 학자의 학문적 토론이 관념적인 데로 흘러가더라도 막으려고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변호하였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퇴계가 남명에게 보낸 답장에 대해 감동했다. "'배우는 자가 명성을 훔치고 세상을 속인다'는 논의는 그대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근심하고 있습니다"라는 한 대목에 주목했다. 다산은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훔친다'는 비난을 가볍게 쏟아놓으면 천하의 사람을 악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깊이 경계하였다.

곧 온갖 사악한 행동에 빠져든 인간들만이 '명성을 좋아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다산은 퇴계에 대해 학자들이 비록 온갖 병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움에 뜻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포용하여 감화시키고 격려하여 함께 대도(大道)에 이르게 하는 큰 스승이었음을 거듭 칭송하고 있다.

'헛된 명성을 좋아한다'(好名)거나 '명성을 훔친다'(盜名)고 비난만 한다면, 사람들은 명성을 내다버리고 탐욕에 빠져 온갖 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다산이 강조하고자 한 대목이다.

명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비록 그 명성에 진실성이 부족하더라도 선을 좋아하고 선으로 나아가려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선한 성품을 따르는 것이라 본다. 인간은 명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명예롭게 하고자 할 때에 선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을 저버리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호남 균열' 지역 정치권부터 반성해야

호남권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광주·전남과 전북이 따로 유치전에 나서는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전남과 전북 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남 J프로젝트와 전북의 새만금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전남과 전북 미래를 결정할 주요 현안사업이지만 대규모 골프장, 신재생 에너지기지 건설, 마리나 및 워터파크 조성 등 중복되는 부문이 많다. 이렇다 보니 양측의 물밑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벨트 역시 광주시는 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북은 독자적으로 새만금지역 유치를 선언했다. 그만큼 호남권 유치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양 지역의 온도차도 확연하다. 새만금사업이 포함된 전북의 반발 강도가 광주·전남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해 광주·전남과 전북의 입장이 같은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자체 간의 경쟁이 자칫 지역민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이것이 호남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호남은 타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인구나 경제 규모,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영남에는 애초부터 뒤져 있고 충청권에도 이미 추월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내부가 분란에 휩싸인다면 성장 추진동력을 잃게 돼 지역발전은 더욱 더디게 된다.

호남 공동체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부터 상생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은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교류의 폭을 넓혀 양 지역 간 연대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호남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상생 발전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 지방재정 언제까지 전국 '꼴찌'인가

자치단체의 재정 충실도를 평가하는 전남의 재정력 지수가 3년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광주의 재정력 지수도 6대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에 따르면 전남(본청 기준)의 재정력 지수는 0.3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시 역시 0.569로,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재정력 지수는 지난해 0.594에서 0.564로 하락하는 등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크다. 재정력 지수는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광주와 전남도의 자율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과 광주지역 자치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신안군의 재정력 지수는 0.107, 화순 0.115, 고흥 0.121 등 자자체 대부분의 재정구조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광주 동구와 남구는 올해 직원 인건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긴 하나 작금의 심각성은 현 정부의 지방 홀대가 직접적 요인이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겨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자자체가 할 수 있는 재정 확충 방안은 체납세금 징수, 예산 절감, 소유재산 매각 등이 고작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환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자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할애하는 차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지역 정치권도 현 정부의 지방 홀대정책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김금례

장애여성 성폭력, 우리 모두 관심 가져야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성폭력 사건은 가장 끔찍하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들은 법정에서 끝났다고 해서 그 사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잔인한 범죄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는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과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경찰의 초동수사를 거친다.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다음 법정사건으로 진행되고,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과정은 계속된다. 그렇게 한 건의 성폭력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종결되는데, 법정에서 사건이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미 가족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온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거나 이웃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6~2009년까지 전체 성폭력범죄사건 6만8986건의 2.54%인 1750건이 친족 성폭력으로 신고됐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지만, 보호받을 공간이 없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광주에서 개소한 '샛터'의 정원은 10명. 더구나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시행규칙에 의거해 6월 이내(친족, 청소년 1년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다. 여전히 보강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

첫째,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이 심리적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장애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들은 반복적인 일상생활훈련이 필요하므로 개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

둘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장애인 보호시설, 도우미가 필요하다.

각자 장애유형이 다른데다, 10대에서 60대까지 한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시각1급 여성장애인이 입소할 경우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상담원 선생님이 계속 따라다닐 수 없어 문제가 생긴다. 활동도우미 신청이 쉽다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만, 현재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활동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셋째, 2차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룹 홈 개설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선천적으로 부모가 지적장애인이거나 조부모에게 보호받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다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룹 홈 안에서 보호받고 반복적인 일상생활훈련 교육과 함께 직업훈련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폭력 피해율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위기 상황에 쉼터를 찾는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 모두 관심과 배려를 갖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겠다.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샛터' 시설장〉

기고

진선기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로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기초과학 부문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 아래 외국의 '과학도시' 모델을 정부가 본격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제과학비즈벨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부터다.

미래 '국가 먹거리' 창출을 내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전체 부지 규모는 20만㎡(약60만평)이며,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연구 및 분석장치인 중이온가속기 등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위한 첨단장비들도 갖춰진다. 해외 유명 '과학도시'를 모델로 삼아 기초과학을 육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노벨상 사관학교'라 불리는 해외 유명 과학도시처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과학비즈벨트를 어디에 조성하느냐가 문제다. 거점지구는 기초과학 중심의 과학도시를 지향하되 기존의 과학기술 단지와 연계해 이른바 클러스터(cluster)개념의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호남권에 유치되어야 하며 특히 광주에 와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여망이다.

광주는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산업기반의 집적화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고급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퀌토과학과 신재생에너지, 의료로봇 등 핵심 기초과학연구기능이 집적화돼 있는데다 R&D특구와 연계한 시너지효과, 부지확보 용이, 교통 및 물류기반 구축 등 장점이 많다.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 기초과학분야 인프라가 집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호남권에 배치하는 것은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놓고 공모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벨트 입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충청권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국 공모를 연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유치전을 펼쳐왔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너무 과열됐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당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를 복수로 입지로 지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에는 전국의 1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고, 당초 1곳만 지정할 예정이던 입지를 두 곳으로 나눴다. 이 같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입지를 분산하면서 비효율성 문제는 물론 경쟁력 상실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복수로 입지가 결정되자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이라며 결과에 불복해 반발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 개입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이라는 비난도 샀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정부 주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모전 폐해가 논란이 됐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전 국토의 균형 발정 차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선정해야 한다. 첨단산업 기초를 다진 광주는 그 최적지다.

〈광주시의회 의원〉

無等鼓

新 출애급기

세계의 명화로 남아있는 영화 '십계'는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영화 내내 이어지는 스펙타클한 장면은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오래 남았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단연 압권이다. 노예로 박해받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찾아 떠난 모세 일행은 람세스의 군대에 쫓겨 홍해에서 막히고 만다. 그러나 모세는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다.

최근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집트 민주화운동이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 선언으로 대전환점을 맞았다. '현대판 파라오'라는 별칭과 함께 30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렸던 무바라크도 끝내 민중의 불 같은 민주화 요구에 손을 들고 말았다.

비밀 경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의 입을 틀어막고 권좌를 지켜온 그는 몰래 모은 재산이 78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바라크가 누렸던 전제 권력은 기원전 1500년 히브리인들을 억누르며 이집트를 통치했던 황제 람세스에 필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화를 외쳤던 이집트 시민들의 함성에 못 이겨 카이로를 등져야했던 무바라크의 행적은 볼썽 사나웠다. 그는 가족과 함께 헬기에 몸을 싣고 다급하게 홍해 주변에 마련된 휴양소로 쫓겨 나는 신세가 됐다.

무바라크의 '신(新) 출애급기'는 모세의 그것과는 전혀 딴 판이었다. 이집트에서 억압받던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평화와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는 훗날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무바라크의 카이로 탈출은 비극적이다. 국민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되레 초라한 도망자가 됐다.

하야 성명 하루가 지난 후 그는 이집트를 벗어나 인접 국가에서 은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훗날 무바라크의 '출애급'을 호의적으로 묘사할 역사가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서민 등치는 불법 고리대금업자 뿌리 뽑아야

요즘 메일을 확인하다 보면 "은행 대출 안 되세요? 신용 낮아도 환영, 10분 내 입금, 주부나 무직자도 가능합니다"라는 스팸메일이 수도 없이 오고 있다.

모두 사설 대부업체에서 보낸 것들로 "무보증으로 5000만원까지, 이자 연 8.8%" 등의 문구로 서민들을 유혹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언론매체에서도 연예인이 등장해 대출을 권유하고 있을 정도니 대출 홍수에 휩싸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나 정작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파산에 이르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부업자들은 유령회사나 불법고리대금업자도 많아 그 피해가 늘고 있다.

서민들은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최소액만을 받아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고,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는 유령회사나 불법고리대금 업자들에 대해 적극 단속해 주길 바란다. ▲최계숙·광주시 남구 원산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